하나님 출장여행 따라가기

(민9:1~23)

1.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3. 그 정한 기일 곧 이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5.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출장여행 따라가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출장 여행 따라가기'

여름이 되니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바캉스를 가게 되는데 여행 중에서 백미와 같은 여행이 있다면 어떤 여행일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즐거운 여행이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있어요. 신랑이 큰 무역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생활이 한창일 때 한 달간 프랑스로 외국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신혼부부에게는 잔인한 기간입니다. 구약성경에서도 "결혼한 사람은 일 년 동안 군대에 보내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인간적인 말씀입니다.(하하하) 고민 끝에 신부가 신랑을 따라 출장여행에 동행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신랑은 파리로 출장을 가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뤄야 하는 용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과 함께 가는 신부는 출장여행을 따라가는 것인데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 목적으로 파리를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데 집을 떠나면서부터 신부는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발이 지연되어서 공항에서 저녁을 먹게 되어도 신랑의 일에는 혹시 변수로 작용할지는 몰라도 신부는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므로 지연이 돼도 상관이 없고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외지로 가면 어디서 신랑과 함께 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공항에서 두 시간을 지연하든 세 시간을 지연하든 아니면 세 시간을 일찍 도착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

다. 신랑의 출장에 차질이 없기만을 바랄뿐이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랑이 바이어와 파리에서 식사를 한다면 함께 해도 되는 자리면 함께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옆 테이블에서 신랑이 시켜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으면 됩니다. 여행비용이 걱정입니까? 파리로 출장 갈 정도면 불어도 잘 하지 않겠습니까? 영어 잘하고 불어 잘하는 신랑과 함께 있으니 어디를 가든지 막힘이 없습니다. 돈 걱정 없고 숙소 걱정 없고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어 여행 중에 출장여행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여행이고, 이게 바로 본문이 전해 주시는 선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민이 왜 살고 있느냐? 출장여행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출장여행을 오신 것처럼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는 비용부담 없고 신랑의 능력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할 것 없고 아무런 압박감 없고 스트레스 없이 그냥 출장여행 따라간 새색시의 마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을 쓰면서 주여 삼창을 하고 '이걸 이루어주세요. 저걸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선민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기에 이런 얘기가 가능하냐?
출애굽 후에 일 년이 지나서 첫 번째로 시내 산에 머무는 동안에 유월절을 지냈는데, 그 동안에 시체에 접촉이 돼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따집니다. '내가 부정하게 되었지만 일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기간 7일을 다 채우고 나서 그 다음 달 두 번째 달 열네 째 날에 유월절을 지내도록 허락을 하라' 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정해서 참여하지 못하거나 진영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 규정에 매여 있더라도 유월절을 포기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유월절을 포기한다는 것은 본문을 쭉 읽어보면 선민 됨이 중단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인데 망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망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유월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선민 됨의 근거라는 것이지요.

이 유월절과 15절 이하의 성막에 임한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이 행군하고 구름이 멈춰있으면 진을 치고 했다는 이 얘기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는 것이고,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고 멈추면 진을 쳤다는 것은 행군직전의 얘기로 맥락상 이해가 가는데, 무엇 때문에 지나간 유월절을 갖다 붙이냐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지금 유월절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 얘기를 통해서 뭔가를 가리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선민 됨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인데, 유월절은 어린 양 피가 발라진 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살고 어린 양 피가 발라진 바깥쪽의 세상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는 멸

망의 기운에 접촉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 안에 머무는 사람임을 망각한다는 것이고 선민 됨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것이지요. 어린 양 피가 발라진 문 안쪽에 있는 사람들과 어린 양의 죽음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피가 발라진 문을 경계로 어린 양 피 안쪽 공간과 어린 양 피 바깥쪽 세상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린 양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바깥쪽 세상과 그 안쪽 공간에 머무는 선민으로 나누어진다는 얘깁니다. 바깥쪽 세상에 있는 자들이 멸망으로 운명 지어진 애굽 사람들이고, 안쪽이 선민인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린 양 피 안쪽에 있다는 것과 어린 양 피 바깥쪽에 있다는 것이 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세상인 십자가 뒤쪽 세상으로 나뉘어졌는데, 선민 됨이 포기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 있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는 삶에서 뭔가 이루고 싶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갖고 싶다는 자체가 마음이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이고 선민 됨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는 내가 항상 어린 양 피 안쪽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다 이룬 자'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랑 출장 여행을 따라가는 색시의 경우입니다. 신랑은 출장 가서 이뤄야 될 용무가 있지만 그 출장여행을 따라가는 신부는 문밖을 나서면서부터 신랑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이룬 것인데 이게 바로 선민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신랑을 하나님으로 대입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수행하시든지 출장여행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색시가 신랑과 함께 하므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일이 도대체 성막에 임한 구름과 불기둥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것인데,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이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니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이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이 서면 섰으므로 구름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참 난센스였습니다.
유월절과 구름기둥 얘기를 붙이니 그동안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고 그동안 오해했던 게 밝혀집니다. 구름의 움직임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시내 산에서 행군이 시작돼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만에 도착하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 경계입니다. 이제부터 가나안이 시작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함으로 그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시내 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불 신앙적 정탐보고와 그에 동조한 이스라엘 전

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38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그리고 그 이후에 38년 광야생활 전체를 포함해서 모세가 나중에 민수기를 쓰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구름기둥의 내용을 잘 보면 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이나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나중에 썼기 때문에 가능한 얘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보세요. 38년 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함께 했는데 이게 가나안 복지로 인도했다는 얘깁니까? 구름이 인도하심의 표식입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내 산 남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걸렸어요. 시내 광야 어디를 헤매든지 아라비아 광야 어디를 헤매든지 어떤 지점에서든지 2주 3주 길게 잡아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250만 명 중에 그 정도 지리를 알 만한 사람이 수십, 수백, 수천은 있었을 것입니다. 정 안되면 돈을 주고라도 대상들이나 나그네 중에 지리에 밝은 사람들을 골라서 앞세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당장이라도 길게 잡아 광야 어디에 있든지 출발하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8년 동안 가지 못하는 이유는 게을러서도 아니고 가나안 복지를 향한 열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구름기둥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250만 명을 발걸음을 광야에 묶어 두고 있는 게 바로 구름입니다. 복지로 인도하시기는커녕 방해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인도하심이 돼야 합니다. 한 달 넘어 걸릴 필요가 없는 거리를 38년 걸리도록 헤매게 만들었다는 것은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가나안 땅 복지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고 막은 것이고 저지한 것입니다.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고 하는데 왜 일 년 동안 머뭅니까? 이건 인도가 아니에요. 방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38년 동안 광야에 묶어 두시고 방해를 하셨을까요? '구름을 보고 움직이라'는 명령을 주신 다음에 모세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지킵니다. 모세를 따르는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십 세 이상 육십만 장정은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 정도의 기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데 광야 행군이 시작되자마자 구름기둥이 함께 하는데, 이 구름기둥은 유월절의 내용을 확인시키는 것이지 인도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광야 어디를 가든지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있다는 것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갔다는 것은 구름기둥을 보고 간다는 것인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어린 양 피 안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지 지금 가나안 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11일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데 그 11일 동안에 이스라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11일 동안

구름을 통해 인도하셨던 것은 지금 유월절 얘기와 같이 붙여 놓은 이 의도를 생각할 때, 구름이 뜻하는 바는 유월절의 의미를 광야에서도 기억하고 어린 양 피 안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어린 양 피 안쪽에 있다는 것은 어린 양 피 바깥에서 이루고 싶은 게 없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마음이 튕겨져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구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가나안 복지를 빨리 가고 싶고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므로 마음이 어린 양 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구름을 따라 간 것이기 때문에 정탐하고 난 뒤 가나안 땅이 내가 출장 와서 이뤄야 될 용무가 돼버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출장 용무였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가나안 땅 복지를 갖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어린 양 피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으로 선민 됨이 끊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지요. 나를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가 가득한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 가신다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구름이 나타났던 이유는 구름이 보이는 이 자리가 바로 어린 양 피 안쪽 자리에서 이미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으로, 선민이라면 목적을 향해 가거나 목적에 이끌려 가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룬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새색시가 문 밖에 나오면서부터 신랑과 함께 한다는 목적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목적을 이룬 자로 신랑의 출장여행에 동참하는 것이고 여행을 즐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파리에 가서 신랑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랑의 일은 신랑이 다 합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고 싶은 일과 계획하신 일은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과정에 나는 참여하는 여행자요, 새색시입니다. 출장비용을 부담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이뤄야 된다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필요한 만큼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내 형편이 이런 곳에 간 것입니다. 파리에 가도 굉장히 비싼 식당이 있고 뒷골목에 가면 노천식당이 엄청 많은데 굴만 놓고 먹습니다. 생굴을 광주리에 담아놓고 포도주랑 먹는 게 다예요. 한 번 쭉 걸어가면서 보면 프랑스 음식은 굴밖엔 없는 것 같아요. 별 볼일 없는 인생인 것 같아도 신랑과 함께 있으면 즐거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임마누엘) 것은 이 땅에서 뭘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오해했다는 것이지요.
구름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붙여서 말씀하시므로 유월절에서 선민 됨의 특징이 어린 양 피 안쪽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피 안쪽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 이쪽으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쪽은 십자가로부터 주님이 움직이신 행동반경을 보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마음

이 이쪽에 있는 자들이 선민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소원이 없는 것이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 따라서 우리 마음이 갔으므로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은 선민 아닌 사람들이 되자는 얘기와 똑같은 말입니다. 선민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되자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민을 택하신 이유는 가나안 복지를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출장지를 정해 놓으신 것뿐이니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냐? 새색시가 되면 됩니다.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목적 충만, 목적 성취된 자로 하나님의 출장여행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구름이 이끈다.'는 것은 구름 위에 하나님이 계시므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게 될 목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목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랑이 출장을 갔으면 신랑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내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신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의 하나님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이게 목적이에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옛날에 한창 일본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세계관광에 돌아버렸을 때 유럽을 관광하고 도쿄공항에 내린 일본 사람들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안내하는 사람의 깃발'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나안이라는 비전을 마음에서 뿌리째 뽑아버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11일 간의 오해로 인해서 38년간의 광야유랑이 주어집니다. 11일 동안에 구름을 보면서 '야! 나는 목적이 다 이루어졌어. 내 가나안은 진짜 영적인 현실적인 의미에서 가나안은 지금 구름을 통해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광야면 어떻고 가나안 땅이면 어떻고 팔레스틴이면 어떻고 어디면 어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데.'라고 신랑 출장여행 따라가는 새색시 같은 마음으로 11일 동안을 있었으면 그냥 곧바로 12일 째부터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1일 간을 오해하는 바람에 38년 동안을 광야생활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목적지를 이 땅 어디에 둡니다. '내가 십억 벌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십억을 벌게 해주실 거야. 내년에는 부장으로 승진해야지. 내가 내년에

는 우리 아들을 일류대학으로 보내야지. 하버드대로 보내야지.'라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소제 제물의 의미가 없습니다. 소제 제물의 의미를 따른다면 지금 이 순간 가루가 돼서 위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야 하므로 내일 일을 바라볼 수가 없고 이틀 뒤의 일을 바라볼 수가 없고 목적이 없는 것이지요. 선민의 삶은 목적 지향적 삶도 목적에 이끌리는 삶도 아니고 목적 해방적 삶이고 목적 없는 삶입니다. 목적 이룬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린 양 피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어린 양 피 바깥쪽에는 내 볼일은 없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 피 안쪽 세계에서 주님을 따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고,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출장 가셔서 이일 저 일을 이루시는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유월절이 합쳐져서 선민들에게 주어졌던 이 의미를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걸어가는 동안에 완전히 오해했고 가나안 정탐을 한 뒤 열 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내 일로 내가 출장 가서 이뤄야 되는 용무로 생각하는 바람에 '이런 가나안 종족을 어떻게 무찌르라는 것이냐?'라고 속이 확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구름을 보면서 구름이 함께 하는 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목적은 완성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민14:9절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용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가 목적을 세우는데 선민 됨이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 피 바깥쪽으로 마음이 튕겨져 나가면 이미 선민 됨이 끊어지므로 십자가를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마음으로 바라보자는 애깁니다. 그 경계선을 바라보아야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내게 자극을 주고 갖고 싶어 하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똑같은 감정에 반대방향의 움직임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 피 경계 바깥쪽으로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경계선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므로 이쪽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뤄지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목적이고 어떤 재벌도 이루지 못한 목적을 우리는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과 함께 함을 이루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직도 살려두신 이유는 이 세상이라는 출장지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용무가 있는 것이므로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신랑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파리에서와 같은 부담 없는 여행을 즐기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유월절과 성막 위의 구름기둥의 연합됨 속에서 나타나는 이 오묘한 진리가 온전히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